

- 순례길로 이어지는 한국과 아시아 -
아시아 종교지도자 · 청년과 함께하는
2019 한국순례주간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위원장 정순택 주교)는 올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아시아 10개국 종교 지도자와 청년이 함께하는 ‘2019 한국순례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각기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공유하는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순례 안에서 함께 걸으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되었던 ‘한국순례주간’은 올해로 3년째를 맞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한국 천주교회 230년 그리고 서울’ 바티칸 최초 전시를 기념하며 아시아 15개국의 청소년과 함께한 ‘2017 한국순례주간’, 2018년에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 선포’를 축하하며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및 아시아 14개국이 참여한 ‘2018 한국순례주간’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과 ‘천주교 서울 순례길’의 국제순례지 선포 1

주년을 기념하며 열리는 ‘2019 한국순례주간’은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사목’을 주제로 아시아 10개국 종교 지도자와 청년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각국을 방문 취재하여 얻은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하게 될 아시아 순례 소식지 ‘The Pilgrims(순례자들)’가 9월에 창간됩니다. 복음화를 향한 ‘한국-아시아 순례 네트워크’의 힘찬 도약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 |

• 아시아 주교단과 함께하는 미사 •

일시: 9월22일(일) 오전 10시

장소: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집전: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단 공동집전

| 순교자성월을 달는 미사 |

일시: 9월29일(일) 오후 3시

장소: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집전: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주교 정순택



아시아 교회를 하나로 이어주는 소식지 ‘The Pilgrims(순례자들)’

아시아 교회의 살아있는 소식과 순례 정보를 한글과 영어로 담아낸 소식지 ‘The Pilgrims(순례자들)’는 연 2회(5월 · 9월), 온·오프라인으로 발행됩니다.

‘The Pilgrims(순례자들)’의 온라인 판은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아시아 선교의 선구자였던 김대건 성인을 기리며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방인 사제 양성을 지원하는 ‘김대건 성인 기념사업회’의 후원회원에게는 본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회원가입): 02)2269-0413(www.martyrs.or.kr)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